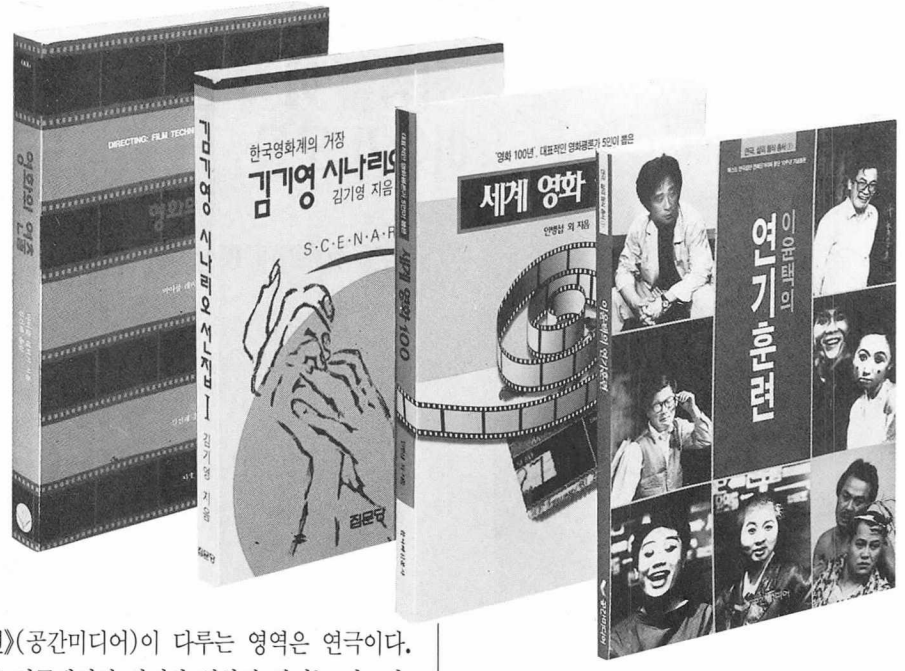
정교한 정보 담은 영화책들 활발

연출·연기·각본·영화사 망라해



기술복제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인 영화는 이제 하나의 교양이다. 90년대의 젊은이에게는 문학의 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고, 80년대의 세례를 받은 젊음들에게는 혁명을 대체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들러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한 영화관람은 옛일이 되었다.

특색 있는 영화잡지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3만명을 헤아리는 영화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딘지 미흡하다. 전문적이고 정교한 정보의 전달은 단행본의 몫. 영화관련 입문서의 출간은 얼추 한매듭이 지어졌고, 최근엔 더욱 다양한 책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내용을 담고 나와 있다.

《김기영 시나리오 선집1》(집문당)은 한국영화의 전성기였던 60년대를 장식한 감독의 한사람인 김기영의 시나리오 모음이다. 김기영 감독이 직접 쓰고, 영화로 만든 〈양산도〉 〈하녀〉 〈전쟁이여 영원히〉 등 여덟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김기영 감독은 자신이 쓴 시나리오가 아니면 연출을 하지 않는 습벽을 지닌 감독으로 작품세계도 독특하다. 개인과 본성의 문제를 정교한 서술구조와 형식체계를 통해 영상으로 옮겼다. 그의 대표작 〈하녀〉는 공포영화가 아님에도 오싹함을 느끼게 한다. 우연히 들어온 가정부가 주인공과 정사를 벌인 이후 마님 행세를 하며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우여곡절 끝에 가정부는 비참한 말로를 맞고 가정은 평화를 되찾는다는 줄거리.

시나리오가 영화의 설계도라면 연기는 배우라는 '시멘트'를 이기는 '물'이다. 《이윤택의 연기훈련》(공간미디어)이 다루는 영역은 연극이다. 물론 연극에서의 연기와 영화의 연기는 다르다. 하지만 영화와 연극연기의 거리는 시나리오와 문학 사이의 틈보다는 훨씬 가깝다. 연기는 연극의 기본이다. 연극배우가 영화배우로도 성공한 예는 드물지 않다. 세계적으로는 로렌스 올리비에 경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최근 활발한 스크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갑수씨가 대표적이다.

문화판의 '게릴라'로 통하는 연출가 이윤택씨는 배우를 "노동자이며 명상가이고, 창녀이며 수도자"라고 규정한다. 인내의 연속인 연기훈련과정을 버티기 위해서는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한다. 호흡의 실제 훈련, 말하기의 방법, 연기론의 체계 등도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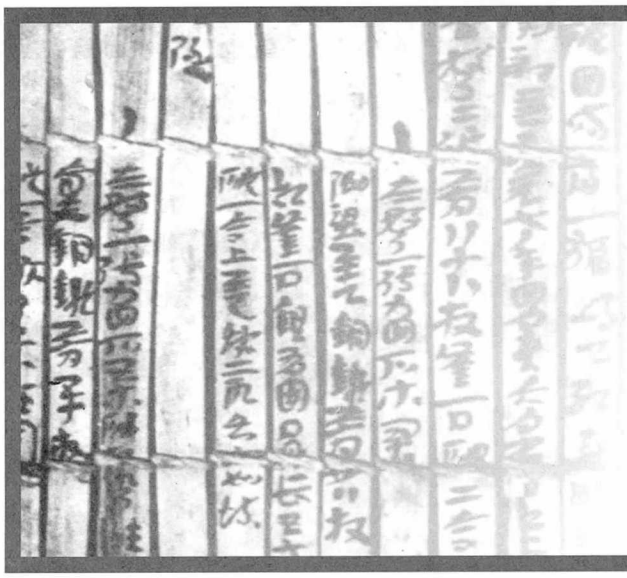
감독은 영화의 꽃이다. 그리고 절대자다. 《영화의 연출》(지호)은 영화와 드라마 연출의 모범을 보여준다. 컬럼비아 대학 마이클 래비거 교수(영화·비디오과)의 텍스트를 〈49일의 남자〉를 연출한 김진해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영화감독이 되려는 사람에게만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스탭진과 배우들,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매니아가 읽어도 유용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적인 면이나 미학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고 제작현장에서 몸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기술과 미학을 아우른 점이다. 영화연출은 다양한 기술을 종합할 때 가능하다. 감독은 주제의 선택에 남다른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주제와 연관되는 소재에 대한 철저한 느낌을 지녀야 한다고 래비거는 말한다. 또한 배우의 관점과 의식상태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96년은 영화역사의 두번째 세기가 시작되는 원년이다. 영화탄생 백년을 맞았던 지난해에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기념행사가 잇따랐다. 《세계 영화 100》(한겨레신문사)은 한겨레신문에 연재한 '영화 100년 영화 100편'을 책으로 엮은 것. 영화평론가 안병섭·주진숙·김지석·정성일·이효인씨 등이 엄선한 영화 100편을 선정자 다섯명을 포함한 20여명이 나눠 썼다.

선정기준은 수상경력이나 감독의 유명세를 떠나 영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시대와의 긴장에 두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그리피스의 〈인톨러런스〉에서 에밀 쿠스트리차의 〈언더그라운드〉까지 제작연도순으로 배열했다. 할리우드 영화의 편향에서 벗어나 유럽과 사회주의권, 그리고 제 3세계의 영화를 골고루 담았다.

——최성일 기자



좋은 나무여야 좋은 책을 엮었듯이 …

종이가 없었던 춘추전국 시대에는 나무조각(木簡)이나 대나무조각(竹簡)에
문자를 새기고 그들을 엮어서 책(冊)을 만들었습니다.수레 가득히 목간을 싣고 여행을
떠났다는 당시의 사상가들에게 목간(木簡)을 만들 질좋은 나무가 꼭 필요했듯이…
늘 종이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기업 — 우정지업이 여러분의 출판,
인쇄문화 창달에 큰 몫을 거들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종이공급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모조지 / 아트지 / 서적지 / 라이온 코트지 / 중질지
스노우 화이트지 등 일반용지 ●레자크, 레이드지 / 색지
밍크지 / 세미그로스지 / 엠보싱지 등 특수용지
※변규격/종이상담환영

(주)우정지업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9-22 서교진 BD 101호
Tel: 325-8162 Fax: 325-8163

WOOJUNG paper

교과서 밖에서 키우는 학습능력

글쓰기 지도서, 교과서 밖 상식 등 다양

최근 어린이 학습서에는 교과서 밖에서 교과서를 찾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열려라, 쏙쏙…》 시리즈(전4권, 중앙일보사)나 《글쓰기 파피루스》(정태선 지음, 미래미디어), 《나도 이제 꼬마작가 1·2》(양윤옥 지음, 웅진), 《만들어 보자, …》 시리즈(로리 칼슨 외 지음, 전3권, 진선출판사)는 이같은 흐름의 대표적 형태다.

《열려라 쏙쏙 … 시리즈》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주요 과목별로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상식을 모은 책이다. 1권에 해당하는 《열려라 쏙쏙 국어》는 동화를 뒤집어 보기도 하고, 비슷한 동서양의 이야기를 비교하는 등 국어교과서 밖의 일을 담았다. 숫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수학이야기. 반장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원리를 설명한다거나 시장 심부름을 가서 물가의 변동을 아는 등 경제, 정치, 사회, 외국 이야기를 풀어내 사회과목에 쉽게 접근하는 《열려라, 쏙쏙 사회》, 이밖에 《…과학》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왜 침이 나올까 같은 작은 의문에 논리적인 해설을 붙여 과학적 흥미를 갖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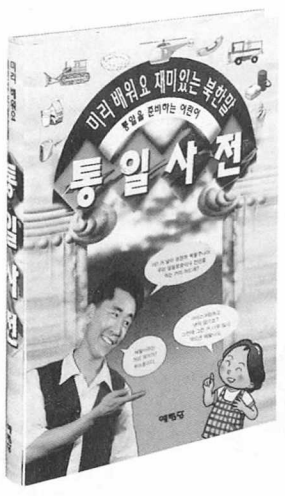
《글쓰기 파피루스》와 《나도 이제 꼬마 작가》는 대입시험에 논술이 포함되고부터 쏟아져나온 글쓰기 '요령서'와는 좀 다른 성격의 글쓰기 지도서다.

《글쓰기 …》는 아이들을 의미있는 상황 속에 빠뜨려 자기 표현 욕구를 느끼게 하고 이를 글쓰기로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소개된 우화를 읽거나 듣게 하고, 그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한 '다르게 생각하기'는 이 책만의 장점. 《나도…》는 말 대신 글로 인사하기부터 시작해 글이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진솔하게 옮겨적는 것임을 보여준다.

'난 할 수 있어!'라는 부제가 붙은 《…만들어 보자》 시리즈는 어린이에게 있어 만들기가 단순한 장난, 재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 폐품을 활용해 바구니 등 작은 소품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신나게 만들어 보자》, 배웠던 것을 응용하는 만들기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 만들기를 재료별·계절별로 나누어 담은 《멋지게 만들어 보자》 세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현주 기자

통일을 바라며 미리 배우는 북한말

조재수 외 엮음 《통일사전》



어린이를 위한 북한말 사전 《통일사전》(예림당)이 출간되었다. 도시락은 '곽밥'으로, 아이스크림은 '얼음보숭이'로, 무선호출기는 '주머니종'으로 부르는 북한 말은 다른 나라 말처럼 생소하다. 분단된 지 50년만에 생활, 풍습은 물론이고 말까지 완전히 달라진 탓이다. 《통일사전》은 현재 북한에서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우리말과 완전히 다르거나 의미가 변한 2,810여개의 어휘를 뽑아 실었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어록과 평양말을 기초로 하여 다듬은 '문화어'를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책은 문화어를 집대성한 《조선말대사전》을 기초로 만들었다. 표제어는 북한의 표기법을 따랐지만 뜻풀이는 대체로 우리말로 했다.

예림당/A5신/264면/6000원

좋은 출판 소재나 출판 원고를 찾습니다.
출판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대행합니다.

바른 과정, 좋은 책 —
우정 미디어의 출판 대행 서비스

지은이의 출간의도를 정확하게 청취.
원고 검토 후 출간 및 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
저자와 함께 합리적 디자인 방향을 결정.
PR방향 검토와 보도자료 제작.
광고 계획서의 작성과 광고집행.
서점 진열과 판매 동향에 따른 판촉활동.
재판 발행을 위한 보완 및 수정.

(주)우정미디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9-22 서교진 BD 101호
Tel:324-9762 Fax:338-0192

WOOJUNG media